

## 최저임금, 1,070원의 간극 줄이기

이 승렬\*

지난 3월 31일에 노동부장관은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수준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6월 4일에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26.0% 인상한 시급 5,180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201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4,110원을 제시하였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 이 1,070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는 뜨거운 논쟁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6월 4일 전원회의가 폐회되자 민주노동당 소속의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 측이 내건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사흘간 점거하였으며, 11일 회의가 끝난 뒤에도 회의장을 점거하였다. 이에 경영계는 언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월 9일 종업원 100명 미만 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4.7%가 노동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 분위기는 회의장으로 그대로 옮겨진다.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안을 둘러싸고 쟁점이 없는 논쟁을 벌이고, 회의 마지막 날에는 밤을 새가면서 서로 유리한 인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힘을 쓴다. 작년에는 결국 기한을 넘겨 6월 30일 새벽에야 2009년보다 2.75% 인상된 4,110원으로 2010년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때, 미리 관련 통계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논의에 쓰고 있다. 생계비는 단신근로자의 것을 이용하며, 유사 근로자의 임금은 주로 최저임금액에 가까운 수준의 임금근로자 통계를 참고한다. 아울러 해당 연도의 임금인상타결에서 제시된 임금인상률이나 임금상승률 전망치 등도 함께 고려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우리와 유사하면서도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eesy@kli.re.kr).

있는 일본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1차로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액 범위를 7월에 결정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액 범위가 대체로 춘투(春闘)에서 타결된 임금인상률에 가깝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표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교수, 전문가 등)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정치적 힘겨루기로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는 것일까?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안에는 임금, 물가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논리가 붙는다는 사실로 본다면, 법령이 정한 세 가지 지표 이상의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진호(「최저임금 수준은 어떠한가?」, 본지 제1권 제37호, 2008)는 1989~2007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11.2%로 정액급여 상승률 10.4%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을 잘 살펴본다면, 2011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개정액을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6월 3일에 공표된 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서는 2010년 1/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상용근로자)이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급여 기준으로는 4.7%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6월 9일에 공표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5월의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7%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취업자는 24,3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하락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노동시장 동향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 전체의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한국은행이 6월 4일에 발표한 201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2.1%의 성장을 보였다.

밤을 새워가며 최저임금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보며,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차라리 어떤 산식(formula)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이 산식에 몇 가지 경제적 변수를 대입하면, 최저임금 개정액이 계산되어 나오는 자동판매기 같은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한다. 효율성(efficiency)이란 점에서 그만큼 더 이상 좋은 제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밤샘을 해야만 결정되는 그 최저임금액으로 1년을 살아야 하는 근로자의 삶 그리고 이 최저한도의 임금을 어떻게든 보장해 주어야 하는 영세사업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효율성만으로 최저임금 운운할 만한 용기가 쉽게 나올지 모를 일이다.

마침 올해 6월은 월드컵의 열기로 지구가 한층 뜨겁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어느 한 곳에서는 최저임금안을 둘러싸고 유난히 더운 여름을 보내는 이들이 있음을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듯이, 근로자도 사업주도 서로를 품어 안는 최저임금안 심의 결과를 기대해 본다. **KLI**